

### 유럽축구는 리모델링 중

## 토트넘 모리뉴의 '살생부' 떴다

새 시즌 개막 앞두고 팀 개편  
은동벨레 영입 1년만에 방출  
오리에·포이스도 명단에 올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 개편을 위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7월 6500만 파운드(약 1036억원)의 몸값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미드필더 탕귀 은동벨레(프랑스)를 필두로 수비수인 세르주 오리에(코트디부아르)와 후안 포이스(아르헨티나)가 살생부 명단에 포함됐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2일(한국시간) "모리뉴 감독이 지난해 7월 구단 역대 최다 이적료인 6500만 파운드에 영입한 은동벨레를 1년 만에 내보내려고 한다"라며 "은동벨레는 몸값에 맞는 활약을 펼쳐 보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리뉴 감독이 선수단 정비를 위해 내보내려는 몇몇 선수의 명단에 은동벨레가 포함됐다. 오리에와 포이스 역시 방출 명단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모리뉴 감독이 지난해 11월 팀을 맡은 이후 은동벨레를 자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은동벨레는 사령탑의 관심과 특별한 지도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인터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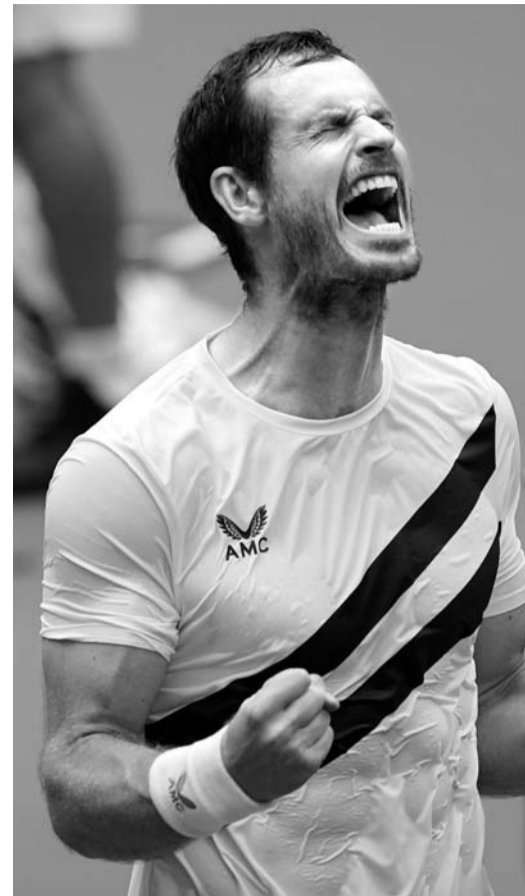
골을 넣은 손흥민이 동료 세르주 오리에(왼쪽)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란(이탈리아)이 은동벨레를 영입하려고 한다. 토트넘은 적어도 1000만 파운드(약 16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동벨레는 지난해 7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지난 시즌 12경기 선발출전에 그친 상황이라 새 시즌

을 앞둔 모리뉴 감독 체제에서 낯날이 안올하는 게 더선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수비수 포이스는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이 점쳐지는 가운데 오리에 역시 최근 영입된 매트 도허티(아일랜드)로 입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연합뉴스



앤디 머리(영국)가 2일 US오픈 테니스대회 이틀째 남자단식 본선 1회전에서 니시오카 요시히토(일본)를 물리친 뒤 환호하고 있다.



세리나 윌리엄스가 2일 여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크리스티 안을 상대로 공격을 성공시킨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 머리, 4시간 39분 접전 끝 '역전 드라마'

US오픈 테니스... 니시오카에 3-2  
2년만에 메이저 대회 단식서 승리  
세리나 US오픈 통산 102승 '최대'

그해 호주오픈에서는 마치 머리의 은퇴 경기와 같은 분위기 속에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머리가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승리한 것은 2년 전인 2018년 US오픈 1회전 이후 이번이 약 2년 만이다.

앤디 머리(115위·영국)가 2년 만에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승리를 거뒀다.

머리는 2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 이틀째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니시오카 요시히토(49위·일본)를 3-2(4-6 4-6 7-6(7-5) 7-6(7-4) 6-4)로 물리쳤다.

먼저 1, 2세트를 내줘 패색이 짙었던 머리는 3, 4세트를 모두 타이브레이크 끝에 따내며 4시간 39분이 걸린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2012년 이 대회 우승자 머리는 최근 고질적인 허리,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은퇴 위기에 내몰렸다.

그는 지난해 1월 호주오픈을 앞두고는 사실상 2019년이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머리의 다음 상대는 펠릭스 오제-알리아시姆(21위·캐나다)으로 정해졌다.

이어 열린 여자 단식 1회전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가 크리스티 안(96위·미국)을 2-0(7-5 6-3)으로 꺾었다.

2017년 9월 딸을 낳고 2018년 상반기에 코트로 돌아온 윌리엄스는 이후 메이저 대회 결승에 네 차례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했다.

최근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윌리엄스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타이 기록(24승)을 세운다.

윌리엄스는 또 이날 승리로 US오픈에서만 통산 102승을 달성, 크리스 에버트(은퇴·미국)의 이 대회 여자 단식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윌리엄스의 2회전 상대는 마르그리타 가스파리안(117위·러시아)이다. /연합뉴스

## 내년 2월 수영선수단 창단 앞둔 남부대 전 수구 국가대표 지도자 이승재 교수 영입

남부대학교가 2021년 수영선수단 창단을 앞두고 전 국가대표 수구 지도자인 이승재(사진)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수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는 뉴질랜드와 경기에서 한국이 세계선수권대회 최초로 1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남부대는 2021년 창단을 목표로 선수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교측은 이달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해 2021년 신입생 중심으로 선수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영선수단은 수구(남), 경영, 다이빙, 핀수영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남부대는 2015광주세계수니버시아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창단에 나섰다. 장기적으로 수영 종목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 경영·수구 종목 팀을 창단하는 것은 남부대가 최초다. 대학 수구 팀 창단은 한국체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남부대 수영선수단 창단식은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다.

남부대 조성수 총장은 "남부대학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2023년 개장하는 '한국수영진흥센터'를 캠퍼스에 보유하게 될 대학"이라며 "대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남부대학교 수영팀을 수준 높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바르사 떠나는 '메시의 친구들'

라키티치, 세비아야 복귀 확정  
수아레스, 유벤투스 이적 초읽기  
메시 행보는 여전히 '오리무중'

리오넬 메시(33)의 거취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소속팀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메시의 친구들'을 내보내는 리빌딩에 본격 돌입했다.

세비아는 1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미드필더 라키티치를 재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4년이며, 이적료는 150만 유로(약 21억원)다.

라키티치는 2010년부터 4년간 세비아에서 뛰며 2013-201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견인한 바 있다.

입단 첫 시즌인 2014-2015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트레블(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2020시즌 프랭크 더용이 주전을 꿰차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 로날드 쿠만 바르셀로나 신임 감독의 새 시즌 계획에서 제외돼, 친정팀으로 돌아가게 됐다.

바르셀로나는 2019-2020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2-8로 충격패를 당한 뒤 쿠만 감독을 선임하고 리빌딩 작업에 들어갔다.

라키티치 이적은 본격적인 리빌딩의 '신호탄'이다.

메시와 함께 바르셀로나 전력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다수의 선수가 쿠만 감독의 '살생부'에 올라



메시가 골을 넣은 후 팀 동료 수아레스(왼쪽)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라키티치에 이어 비탈이 바르셀로나를 떠나 인터밀란(이탈리아)으로 이적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메시와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루이스 수아레스 역시 유벤투스(이탈리아)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른다.

수아레스는 쿠만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전화로 '방출 통보'를 한 선수 중 하나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등 이탈리아 매체들에 따르면 일찌감치 새 팀을 알아보던 수아레스는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타진해온 유벤투스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이미 파벨 네드베드 유벤투스 부회장과 통화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아레스는 유벤투스에 합류한다면, 메시의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처음으로 한 팀에서 뛰게 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테넷
- 2관 테넷, 반교: 디텐션
- 3관 오케이 마담,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 4관 오 문화
- 5관 오 문화
- 6관 테넷
- 7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 8관 세네카를 오 문화
-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 고스트 오브 워, 반교: 디텐션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예회관 갤러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